

매월당 김시습의 백이 이해와 그 의미*

이홍식**

— <차 례> —

1. 서론
2. 김시습의 백이 이해의 두 층위
 - 1) 의리론과<백이숙제찬(伯夷叔齊贊)>
 - 2) 출처관과<군자은현론(君子隱現論)>
3. 김시습의 백이 신화 구축과 그 함의
4. 결론

<국문초록>

상기 연구지는 그 동안 조선시대 백이 수용의 제 양상과 백이 담론의 사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해 왔는데, 본고 또한 이 작업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 본고에서는 특히 조선시대 백이 담론의 첫 장을 연 김시습의<백이숙제찬(伯夷叔齊贊)>과<군자은현론(君子隱現論)>에 주목하였다. 이 두 작품이 조선시대 백이 담론의 초기적 모습뿐만 아니라 은일로 점철된 김시습의 삶의 내적 토대까지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우선 두 작품에 투영되어 있는 백이 이해의 실체를 의리와 은일의 차원에서 새롭게 구축하였다. 그리고 당대의 정치·사회적 맥락, 즉 계유정난이라는 왕도 정치의 붕괴 상황과 연결하여 김시습의 창작 의도를 읽어내고, 작품의 가치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선시대 백이 담론의 장에서 두 작품이 차지하는 위치를 점검하고 의미를 규정함으로써 소기의 과정을 마무리했다.

그 결과 김시습의<백이숙제찬>과<군자은현론>이 백이의 삶을 체화한 김시습의 의리론과 출처관이 투영된 대표 작품임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찬(贊)의 양식에

* 이 논문은 2011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NRF-2011-327-A00462).

** 한양대학교 연구교수

의론을 더한<백이숙제찬>은 무왕과 태공에 비겨 세조와 정난공신을 비판하고 있는 문제작으로, 당대 정치·사회의 맥락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백이숙제찬>은 백이 담론의 장에서 볼 때, 백이의 의리를 신화화/절대화하여 무왕과 태공을 비판한 최초의 작품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

다만 사마천의<백이전>에 대한 분석적·비평적 접근의 부재로 백이 담론이 구체화·예각화 되지 못한 한계, 즉 백이 담론의 초기적 한계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김시습의 백이론과 은일관이 당대를 넘어, 17세기 중반 이후 포양 작업과 맞물려 서인계 지식인들에게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만큼 그 의미가 상쇄되지 않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주제어 김시습, 백이 담론, <백이숙제찬(伯夷叔齊贊)>, <군자은현론(君子隱現論)>, 의리론(義理論), 출처관(出處觀), 군신지의(君臣之義), 백이 신화, 무왕 비판, 계유정난(癸酉靖亂), 세조 비판

1. 서론

매월당(梅月堂)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잘 알려진 바대로 조선을 대표하는 의리지사(義理之士)이자 일민(逸民)이다. 1455년 단종의 폐위 소식을 전해들은 뒤에 스스로 머리를 깎고 자취를 감춘 그의 행적은, 무왕을 피해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백이의 절의에 비겨 오랫동안 칭송되었다. 윤형각(尹衡覺, 1601~1664)이 부여에 있던 그의 사당을 절의사(節義祠)로 영정각을 청풍각(淸風閣)이라 칭한 것은 우연이 아니며, 송시열(宋時烈, 1607~1689)이<홍산현동봉사기(鴻山縣東峯祠記)>에서 김시습을 백이에 대응시킨 것도 같은 차원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신축(1481) 연간에 고기를 먹고 환속하여 안씨를 아내로 맞았다. 수락산

청절암에 거처하며 자취를 숨기고 ‘동봉’이라 일컬었으니, 대체로 백이의 ‘서산’에 대응해 지은 것이라고 한다.¹⁾

이정형(李廷馨, 1549~1607)이 밝히고 있는 것처럼, 백이는 후학들이 김시습에게 일방적으로 덧씌워놓은 이미지가 아니라 그 자신이 자각하고 따르려 했던 실질적인 지표이기도 했다. 수락산 청절암에 기거하며 자신의 호를 동봉(東峰)이라 일컬은 데서도, <백년(百年)>²⁾과 <이제(夷齊)>³⁾ 등 다양한 시편에서 백이와 숙제의 절의와 은일을 칭송하며 따르려 했던 데서도 이를 쉬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같은 시기에 박팽년(朴彭年, 1417~1456)과 성삼문(成三問, 1418~1456) 등 사육신을 중심으로 백이가 자연스럽게 소환되고 있었음을 상기해보면,⁴⁾ 김시습의 백이 지향은 그리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시기 김시습만큼 적극적으로 백이를 소환하고 그의 의리를 재현한 인물이 드물다는 사실이다. 백이 관련 작품의 수에서도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작품에서 다룬 백이 비평 또한 그 차원을 달리 한다. 이와 관련해 특히 주목해볼 만한 작품이 바로 <백이숙제찬(伯夷叔齊贊)>과 <군자은현론(君子隱現論)>이다. 백이의 의리(義理)와 일민(逸民)에 대한 논평을 담은 두 글은 김시습의 시대

-
- 1) 李廷馨, <世祖>, 『知退堂集』東閣雜記乾○本朝瑤源寶錄, “辛丑年間, 食肉還俗, 娶妻安氏. 居于水落山清節庵, 隱其跡, 號曰東峰, 蓋欲以伯夷西山爲對云.”
 - 2) 金時習, <百年>, 『梅月堂集』, “百年一飛鳥, 令名千古身. 恥爲齊景富, 願得伯夷貧. 歲晏松含態, 春回杏吐唇. 境閑無个事, 行止恃蒼旻.”
 - 3) 金時習, <夷齊>, 『梅月堂集』, “紛紛湯武後來多, 想得夷齊先見何. 縱救生民塗炭裏, 細論功過已相差.”
 - 4) 金宗서, 『박팽년의 문학과 정신』, 『동방한문학』32, 동방한문학회, 2007.; 신성환, 『사육신 담론의 전변과 조선후기 시가의 수용 양상』, 『민족문학사연구』46, 민족문학사학회, 2011.

인식과 조선 초기 백이 이해의 한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어 중요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상기 연구자는 오래 전부터 조선시대 백이 수용의 제 양상과 백이 담론의 사적 맥락을 파악하여, 그것이 한국문화사에서 차지하는 의미를 밝히는 데 관심을 가져왔다. 이를 위해 먼저 박지원의〈백이론(伯夷論)〉(상하) 편을 분석하여 박지원의 의식지향과 조선후기 백이 담론의 한 양상을 살펴보았다.⁵⁾ 더하여 김창흡의 백이 인식과 그 의미를 밝혀 18세기 초반 백이 담론의 확장 양상을 고찰하기도 했다. 본고는 그 세 번째 작업으로 김시습의 백이 이해와 그것이 당대의 정치·사회 맥락과 조선시대 백이 담론의 장에서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를 밝혀, 조선 초기 백이 이해의 한 양상을 드러내는 데 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2. 김시습의 백이 이해의 두 층위

1) 의리론과〈백이숙제찬(伯夷叔齊贊)〉

하늘이 무왕에게 명하여	은나라 제거하게 했는데
죄인을 주벌했다 하지만	사실은 상서롭지 않았지
천 년의 세월 흐른 이후에	구실이 되는 것이 슬프니
그리하여 백이와 숙제는	무왕의 칼끝을 범하였네
말고뻘 부여잡고 간하니	그 말은 더없이 선행지만
그 일 이미 정해져 있어서	중간에 멈출 수가 없었네
좌우 신하 병기로 치려는데	태공이 의사임을 드러냈네
주나라가 천하의 종주 되자	백이 숙제 부끄럽게 여겨서

5) 이홍식, 『조선후기 백이 수용의 한 양상-연암 박지원의〈백이론〉상하 다시 읽기』, 『한국고전연구』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수양산에 들어가 숨어서는 고사리 캐 먹다 굶어 죽었네⁶⁾

김시습이 백이와 숙제의 행적에 붙인 찬사의 전문이다. 사마천의<백이 전>에 실려 있는 간벌(諫伐)의 행적이 시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백이와 숙제의 다른 행적에 대해서는 전혀 기술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나라를 선양한 일과 주(紂)를 피해 북해 가에 숨어 살다가 문왕에게 귀의한 일은 따지지 않았고, 오로지 무왕의 정벌의 부당함을 간하다 수양산에서 굶어 죽은 행적만을 끌어와 기리고 있다. 이 지점에서 백이를 ‘만고 의리의 표상’으로 이해하려 한 김시습의 의도를 읽어낼 수 있다.⁷⁾

채미기는 이렇다. “저 서산에 올라 고사리를 캐노라. 난폭함으로 난폭함을 바꾸고도 그 잘못을 알지 못하네.” 나는 말한다. 백이와 숙제가 이와 같이 말한 것은 대개 주 무왕이 비록 죄인을 벌하고 백성을 구휼했지만 그 당시 아버의 상을 치르기 전인데도 오히려 그 주검을 장사하지 않고 상복을 입은 채 신하로 임금을 쳤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무왕의 난폭함은 주 임금보다 더 심하다. 더욱이 주 임금의 난폭함은 몸이 노쇠하여 죽게 되면 오히려 후고칠 수도 있고, 그렇지 않더라도 후세의 징악(懲惡)이 될 수 있다. 그러니 주 무왕의 난폭함은 당대에 더 심한 것이 없었고 만세에 악취를 전하는 것이 매우 크다. 어찌하여 이렇게 말하는가? 대개 장사를 지내지 않은 채 군대를 따라 후세에 불효하는 자의 근원이 되었고, 신하로 임금을 시해하여 후세에 제위를 찬탈하는 자의 근본이 되었기 때문이다.⁸⁾

6) 金時習, <伯夷叔齊贊>, 『梅月堂集』, “天命武王, 翦彼殷商. 縱曰誅罪, 實是不祥. 千載之下, 口實可傷. 故彼夷齊, 觸犯鋒鏑. 叩馬以諫, 其言孔臧. 業已定矣, 不可中止. 左右欲兵, 呂挾義士. 天下宗周, 夷齊乃恥. 隱于首陽, 采薇餓死.”

7) 박재홍, 『김시습 문학에 나타난 역사인물의 형상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3~26쪽.

그런데 김시습은 백이와 숙제의 행적을 단순히 찬하는 데만 그치지 않고, 자신의 긴 논평을 붙여 두었다. 이때 논평을 매개한 것이 바로 ‘채미가’다. “난폭함으로 난폭함을 바꾸고도 그 잘못을 알지 못하네.”라는 구절을 끌어와 백이와 무왕과의 관계를 새롭게 설정하고, 그 지점에서 자신의 의리론을 펼치고 있다. 찬보다 긴 논평을 덧붙인 데서 김시습이 백이와 숙제의 행적에 많은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매월당집』 권19에 실려 있는 여러 사찬(史贊) 중에서<백이숙제찬>만큼 긴 논평이 붙어 있는 작품은 없다. 짧은 논평이 붙어 있는<기자찬(箕子贊)>을 제외하면, 대부분 찬사만 있을 뿐이다.

더구나 채미가에서 비롯된 그 논평이 예사롭지 않다는 사실이다. 공맹이 성인이라 일컬은 주 무왕을 은나라 주(紂)보다 더 난폭한 사람으로 규정한 데서 이는 잘 드러난다. 김시습의 관점에 따르면 주 무왕은 은나라 주보다 더 난폭한 사람인데다, 제 잘못을 알지 못하는 소인에 가까운 인물이 되고 만다. 그 아버지인 문왕의 상을 마치기도 전에 그 신주를 신고 정벌에 나섰으니 불효자이고, 신하로 두 마음을 품고 왕위를 찬탈했으니 불충한 자이다. 비록 주(紂)의 실정으로 민심이 이반하고 천명이 무왕에게로 옮겨갔다 할지라도 부자(父子)와 군신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린 것은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김시습의 관점에서 주 무왕이 취할 행동은 바로 주(紂)가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깨닫거나 죽기를 기다려 징악(懲惡)의 표본으로 남기는 것이었다. 이는 성해응(成海應, 1760~1839)

8) 金時習, <伯夷叔齊贊>, 『梅月堂集』, “采薇歌曰, 登彼西山兮, 采其薇矣. 以暴易暴兮, 不知其非矣. 愚謂夷齊之所以言如此者, 蓋周武王雖伐罪弔民, 其時父喪在殯, 尙不葬其屍, 而於衰經之中, 以臣伐君, 則武王之暴, 尤甚於紂. 且紂之暴, 則身衰老死, 尙或可悛, 有亡而爲後世之懲惡. 周武之暴, 則莫甚於當日, 而傳臭於萬世者甚大. 何以言之. 蓋不葬從戎, 爲後世不孝者之源, 以臣弑君, 爲後世篡位者之本.”

이<백이변(伯夷辨)>에서 ‘백이는 태공처럼 무왕을 도와 주(紂)를 치는 대신에 주 스스로 몰라나기를 기다렸을 것’이라는 가정했던 것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⁹⁾ ‘백이는 혁명을 지지하지 않았다’, ‘백이는 무왕을 섬기지 않았다’는 의리론 차원에서 백이와 무왕을 본 것이다.

아! 한나라와 위나라의 말기에 조조와 사마염이 그 임금을 멸시하여 꺾박하고 발호하여 제업을 찬탈하여 이루었다. 『주역』에 “호시탐탐하고 그 욕심이 계속된다.”고 했는데, 이를 두고 한 말이다. 그 권여(權輿)를 어지럽힌 바를 어찌 이루 다 말할 수 있겠는가? 백이와 숙제의 말이 정녕 부끄럽지 않겠는가? … 진나라 말에 이르러 초나라와 한나라가 제위를 다투어 승자가 황제가 되었다. 수수의 전투에서 주로(主虜)가 장차 결정되려 했는데, 이때 오히려 정공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다면 초나라 항우가 황제가 되었을지 알 수가 없다. 정공이 주인을 업신여기고 적을 구하여 두 마음을 품었으니 어찌하겠는가? 이에 한 고조가 정공을 참하여 후세에 경계한 것이다.¹⁰⁾

백이의 입장에서 무왕의 무도함을 비판하고 있는 김시습은 자신의 주장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신하로 두 마음을 품고 왕위를 찬탈한 역사 인물을 끌어온다. 조조(曹操)와 사마염(司馬炎), 정고(丁固)가 바로 그들이다. 맹자가 비록 무왕에게 면죄부를 주긴 했지만, 이후

9) 成海應, <伯夷辨>, 『研經齋集』, “伯夷之歸周者, 卽亦同天下人之心也. 文王雖以天下之二, 服事殷, 紂惡益稔. 其民若盡歸于文王, 紂安得獨存. 必將如寄公之流寓. 文王亦必俾以一小國, 使得卒其天年, 於義無憾. 若是, 則伯夷安得謂不可乎. 將必事周而不違之.”

10) 金時習, <伯夷叔齊贊>, 『梅月堂集』, “嗚呼. 漢魏之季, 曹操司馬炎, 蔑視其君, 憑陵跋扈, 篡成帝業. 易曰, 虎視眈眈, 其欲逐逐. 此之謂也. 其權輿生亂之首, 曷勝道哉. 夷齊之言, 寧不忸怩. … 至於秦末, 楚漢爭鹿, 勝者爲帝. 睢水之戰, 主虜將決, 於是矣, 倘丁公死戰, 楚之爲帝, 未可知矣. 而丁公慢主救敵, 其懷二心, 爲如何哉. 此漢祖之所以斬丁公而警後世也.”

발생한 수많은 역성혁명의 원죄마저 벗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김시습은 이 원죄를 집요하게 물고 늘어진다. 백이와 무왕의 관계를 경도(經道)와 권도(權道)의 차원에서 통합시키려 했던 조선후기 백이 담론의 경향에 비춰 볼 때, 무왕을 향한 김시습의 비판은 매우 차갑고 매섭다. 이는 한고조 유방이 자신의 은인인 정고를 죽인 일화를 끌어온 데서 여실히 드러난다. 유방은 천하를 통일한 뒤에 목숨을 빚진 정고를 후대하지 않고, ‘신하로 두 마음을 품은 자’를 경계하기 위해 참수하였다. 천하를 통일하는 데 정고의 공이 없진 않았으나, 그 공보다 중요한 것이 ‘신하로 두 마음을 품은’ 과(過)였기 때문이다.

탕왕 무왕 뒤따른 자 분분하게 많으니
백이 숙제 선견지명 어떠한지 알겠구나.
도탄에 빠진 백성 구제했다 할지라도
공과 잘 따져보면 이미 서로 차이 나네¹¹⁾

찬사와 부기한 논평 속에 김시습의 마음은 이미 잘 드러나 있다. 하지만 김시습은 이마저도 미진하다 여겨 시 세 수를 더 짓는다.¹²⁾ 『매월당집』 권2에 실려 있는 <이제(夷齊)>란 영사시(詠史詩)가 바로 그것인데, 위에 인용한 것은 그 중 첫 번째 수다. 김시습은 먼저 탕왕과 무왕 이후 두 마음을 품고 왕위를 찬탈한 자가 많음을 들어 이들의 원죄를 비판하고 백이와 숙제의 선견지명을 추켜세웠다. 그리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한 무왕의 공보다 부자와 군신 간의 도리를 지켜 만세의 강상을 세운 백이의 공이

11) 金時習, <夷齊>, 『梅月堂集』, “紛紛湯武後來多, 想得夷齊先見何. 縱救生民塗炭裏, 細論功過已相差.”

12) 金時習, <伯夷叔齊贊>, 『梅月堂集』, “旣贊夷齊之事, 而意猶未盡, 又爲之詩, 詩載詩稿.”

더 위대함을 다시금 나타내었다. 백이와 그의 의리에 대한 지향이 얼마나 강렬하고 절실한지를 알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김시습은 무왕의 공보다는 과를 더 크게 보았고, 그 과의 크기만큼 백이의 공이 위대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 공과의 기준이 되는 것은 다른 아닌 ‘군신 간에 지켜야 할 도리’, 즉 의(義)다. 김시습의 사유 안에서 백이를 통해 구현된 이 의리는 천명(天命)보다 앞서 있고,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하려는 인자의 마음보다 위에 있다. 이처럼 철저히 의리 중심으로 백이의 행적을 찬하고 무왕을 비판한 이는 백이 담론의 장에서는 쉬 확인되지 않는다. 18세기 이후 백이 담론을 주도한 노론 낙론계 학자들의 주장보다 날이 서 있다.

비바람 소슬하게 뉘시터에 불어올 제
 위천의 새와 고기 기심을 잊었는데
 어이하여 늘그막에 응양장이 되어서
 백이와 숙제를 굶어 죽게 하였는가?¹³⁾

무왕을 향하고 있는 이 시퍼런 칼날은 결국 그의 혁명을 도운 태공에게로 예외 없이 겨워진다. 김시습의 관점에 따르면 태공 또한 정고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군주를 배신하고 무왕을 도운 원죄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김시습은 태공과 엄광(嚴光)을 한데 묶어 ‘다른 임금을 도와 제 군주를 죽이고, 제 몸을 깨끗이 하기 위해 인륜을 어지럽혔다’며 매섭게 힐난한다.¹⁴⁾ 그러면서 백이와 태공을 엄격히 구분한다. 백이와 태공의

13) 金時習, <嘲二釣叟>, 『梅月堂集』, “風雨蕭蕭拂釣磯, 渭川魚鳥識忘機. 如何老作鷹揚將, 終使夷齊餓采薇.”

14) 金時習, <嘲二釣叟>, 『梅月堂集』, “太公之佐周室, 功則大矣. 以商世觀之, 義不能侔西山. 子陵之去漢帝, 節則高矣. 以漢室觀之, 忠不能盡雲臺. 嗚呼. 當殷商無

마음을 같게 본 이후의 논의들과 비교해보면 김시습의 백이 이해와 의리 지향이 얼마나 치열한지 알 수 있다.

개에게 뼈다귀를 주지 말아라 때 지어 어지러이 다투어대니
 제 무리와 어긋날 뿐만 아니라 끝내는 주인과도 어그러지네
 주나라 높인대며 정벌 일삼고 한나라 위한다며 아이 죽이니
 명분을 엄히 하고 임금 도와서 예의를 갖추만 못하느니라¹⁵⁾

겉으로는 손양(遜讓)의 형식을 취했지만 겹박으로 이뤄낸 세조의 정변과 왕위 찬탈은 유학의 핵심인 왕도(王道)의 붕괴를 뜻하는 만큼 많은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세조를 비판한 대표 인물로 거론되는 김시습의 포양이 17세기 중반 이후에야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 김시습은 단종의 죽음 이후 스스로 머리를 깎고 자취를 감추어 시대에 대한 비판을 몸으로 드러내었지만, 세조의 찬탈을 직접 비판한 시문은 남기지 않았다고 일컬어진다. 다만 후한 말 동탁의 발호를 비판하며 쓴 위 시 등을 통해 비판을 읽어내는데, 동탁은 한나라 왕실을 강화한다는 명분으로 어린 황제 유변(劉辯)을 폐위시키고 헌제를 옹립한 인물이다. 그의 행적과 세조가 일으킨 정변 및 왕위 찬탈이 서로 닮아 있는 만큼 비판적 의미를 충분히 읽어낼 수 있다는 것이다.¹⁶⁾

이처럼 내포적 의미의 관점에서 볼 때, <백이숙제찬>보다 세조의 정변

道, 天命雖去, 人心縱離, 太公, 一商民也, 可忍佐異姓誅其君乎. 當莽之亂, 炎祚已傾, 光武以雄渾之量, 誅賊救民, 欲光復漢室, 子陵以區區之節, 浩然歸去, 可忍潔其身而亂其倫乎. 然則太公之就, 能助周家之業, 不能全君臣之大義, 子陵之去, 能成光武之大, 不能補漢祚之中興.”

15) 金時習, <述古>, 『梅月堂集』, “母投與狗骨, 集類亂喋哇. 不獨其群戾, 終應與主乖. 尊周專戰伐, 安漢弑嬰孩. 莫若嚴名分, 勤王作止偕.”

16) 심경호, 『김시습평전』, 돌베개, 2003, 129쪽.

과 왕위 찬탈에 대해 비판적인 글도 드물다. 이 글이 정확히 언제 창작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어 창작 동기를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백이와 무왕, 백이와 태공의 관계를 고려해볼 때 정변과 찬탈에 대한 비판으로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은나라 신하였던 무왕이 황제인 주를 정벌하고 태공이 무왕을 도와 대업을 이룬 것은 세조와 정난공신들이 단종을 죽이고 왕위를 찬탈한 것으로 자연스럽게 대치되고, 무왕을 섬기지 않고 은둔한 백이는 세조를 피해 잠적한 김시습 자신과 맥락이 일치하기 때문이다. 다만 성인이자 인자로 일컬어지는 무왕의 혁명 명분에 견주어 세조의 찬탈 명분이 빈약했던 만큼, 세조를 향한 김시습의 비판 강도는 무왕에 대한 비판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세조에 대한 비판이 정당하다면 그를 도운 정난공신에 대한 비판 또한 동일한 차원에서 유효하다. 신하로 두 마음을 품어 군신 간에 지켜야 할 의리를 저버린 죄는 숨길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이 글이 계유정난 전에 창작된 것이라 할지라도, 세조와 그를 도와 혁명을 완성한 공신들에 대한 비판을 읽어내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 인을 실천하여 성인으로 일컬어지는 무왕마저도 백이의 의리론에 비겨 비판한 김시습이니 만큼, 인(仁)이나 성(聖)으로 묶기 어려운 세조의 행적을 긍정하거나 인정할 리는 만무하기 때문이다. 이는 실제로 계유정난 이후 드러난 김시습의 행적을 통해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¹⁷⁾ 그리고 세조의 혁명 명분이 인정받지 못하는 한, 그의 혁명에 동참한 정난공신들 또한 비판의 칼날을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점에서 두 마음을 품었다는 이유로 정공을 참한 한나라 유방의 일화를 <백이숙제찬> 말미에 붙여 놓은 것은 의미심장하다. 세조와 그 공신

17) 宋時烈, <鴻山縣東峯祠記>, 『宋子大全』, “吾東表有東峯先生金時習悅卿者, 當我世祖朝, 率土咸慶堯舜之理, 而先生獨超然遠引, 託身桑門, 變形毀體, 以沒其世.”

들이 이론 정난은 명분 없는 하나의 찬탈에 지나지 않으니 정공의 죄목과 크게 다를 게 없다. 더욱이 천명을 받고 민심을 얻은 무왕마저도 의리론의 관점에서는 비판되어야 할 대상이자 부자와 군신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저버린 소인이 되고 말았으니, 천명과 민심을 얻지 못한 세조와 그 공신들은 만세의 경계를 위해 반드시 참해야 할 대상에 지나지 않게 된다.

다스림을 말하는 자들이 반드시 하·은·주 삼대 때를 일컫는 것은, 예악과 교화와 헌장(憲章)에 법도가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속에는 중재를 가진 자와 어리석고 용렬한 자와 포악한 자가 뒤섞여 있다. 우왕과 탕왕, 문왕과 무왕이 대업을 창도한 것은 하늘처럼 높아 침룡할 수 없고, 산처럼 우뚝하여 뽑을 수 없으며, 만물을 주재하는 원기처럼 다함이 없다. 그래서 반드시 삼대를 일컫는다. 그러므로 만물을 살피는 자는 볼 만한 것을 가려서 보아야 하니, 봉황과 송백만으로 다 보았다 할 수 없다. 과거의 다스림을 본받는 자는 배울 만한 것을 가려 배워야 하니, 삼대가 다 아름다워 배울 만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재를 가진 자와 어리석고 용렬한 자와 난폭한 자를 본받지 않고 다만 우왕과 탕왕, 문왕과 무왕을 본받아야 한다. 비록 우왕과 탕왕, 문왕의 문왕 가운데서도 또한 가려서, 배울 수 없는 것이 있다. … 후세에 임금과 아버를 죽이고 아우와 아들을 죽여서 천하를 소유한 자가 있다. 진시황과 군신은 아들을 죽였고, 사마염과 양광은 군부를 죽였다. 그 나머지 위협해 자립하고서 삼대를 본받았다고 말하는 자는 어찌 반드시 삼대의 죄인의 아니겠는가? 또한 춘추의 죄인이 아니겠는가? 사람들이 함께 성토했는 바이다. 그래서 나는 송백과 봉황으로 비유하였으니, 송백과 봉황을 모두 아름답게 여기지 말고 삼가며 보아야 한다. 그래서 공자가 “소는 다 아름답고 모두 선하다.” 했고, “무는 다 아름답지만 모두 선하지는 않다.”고 말했던 것이다.¹⁸⁾

18) 金時習, <爲治必法三代論>, 『梅月堂集』, “稱治者, 必稱三代者, 以其禮樂也, 教化也, 憲章之有法度也. 其中有中材焉, 庸愚焉, 暴虐焉廁焉. 而因其禹湯文武之

<백이숙제찬>에 투영된 김시습의 비판 의식은 다른 글에서도 그대로 보인다. 김시습은 삼대의 정치를 본받아야 함을 역설하면서, 기왕의 논문들과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다. 우왕과 탕왕, 문왕과 무왕은 삼대를 대표하는 임금으로 그들의 정치는 역대 사대부들에 의해서 모두 본받을 만한 것으로 이해되었지만, 김시습은 여기서 한 발 물러나 ‘가려 배워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들의 대업이 위대하고 우뚝하며 무한한 것은 사실이지만, 가릴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다. 공자가 무왕의 음악인 무(武)가 이름답기는 하지만 반드시 선한 것은 아니라고 말했던 것처럼, 무왕은 신하로서 임금을 시해한 원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백이의 의리론을 바탕으로 당대의 정치를 진단한 김시습에게 이것은 배워서야 아니 되는 것 중 하나다. 사마염처럼 어린 군주를 죽여 왕위를 찬탈한 죄는 삼대뿐 아니라 춘추의 죄인이 되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 김시습은 삼대의 정치를 본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탕왕과 무왕을 혁명의 모델로 합리화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만큼 이 글에도 ‘세조의 단종 시해와 왕위 찬탈을 비판하는 뜻이 들어 있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맹자의 논리를 원론대로 끌어와 폭정을 타도한다는 명분으로 무력 혁명을 일으키는 것은 부당하며, 하물며 폭정이 아닌데도 혁명으로 정권을 탈취한 것은 더더욱 정당화될 수 없음을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이다.¹⁹⁾

首創大業者，如天之高而不可陵也，如山之峻而不可拔也，如元氣之宰萬物而不可窮也。故必以三代稱。故觀萬物者，擇其可觀而觀之。不必鳳凰松柏爲盡觀也。法古治者，擇其可法而法之，不必三代爲盡美而可法也。然不法中材庸愚昏暴，而只法禹湯文武也。雖禹湯文武之中，亦有可擇而不可法者。… 後世有戮君父，殺弟及子，以有天下者，如祖龍君臣之殺子，司馬炎楊廣之弑君父，其餘脅制自立，而謂之法三代者，不必三代之罪人也。抑亦春秋之罪人也。人人之所共討也。余故以松柏鳳凰爲喻，不當以松柏鳳凰爲盡美而聳觀之也。故子謂韶盡美矣，又盡善也，謂武，盡美矣，未盡善也。”

2) 출처관과〈군자은현론(君子隱現論)〉

〈군자은현론〉은〈백이숙제찬〉과 달리 백이의 은일 행적만을 다룬 작품이 아니다. 자신의 출처관을 밝히기 위해 백이 외에도 이윤과 유하혜 등 삼대 때의 성인으로 칭송되었던 인물들의 행적을 끌어온다. 백이 담론장에서, 그 내용을 엄격히 따져보면, 일정 정도 주변부에 놓여 있는 글임에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고에서〈백이숙제찬〉과 나란히 다루는 것은 백이에 뿌리를 둔 김시습의 출처관뿐 아니라 ‘백이와 태공의 관계 설정’에 대한 인식을 엿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백이와 무왕의 관계를 설정하는 것만큼이나 백이와 태공의 관계를 설정하는 문제 또한 백이 담론의 장에서 중요한 논란거리 중 하나였다.

어느 날 갑자기 감개한 일을 당해 이렇게 말하였다. “남아가 이 세상에 태어나 도를 행할 만한데도 제 몸만을 깨끗이 하여 인륜을 어지럽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요, 만약 도를 행할 수 없다면 홀로 제 몸을 선하게 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는 세상 밖으로 떠돌고자 하였다. 진단(陳搏)과 손사막(孫思邈)의 풍모를 사모했지만 우리나라에는 아직 이런 풍속이 없어서 머뭇거리며 결정하지 못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장삼을 걸치고 승려가 되면 원을 풀 수 있음’을 홀연 깨달았다.²⁰⁾

김시습은 의리지사(義理之士)일 뿐 아니라 조선을 대표하는 은자이기도 하다. 1455년 세조가 왕위를 찬탈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시습은 은자의 삶을 선택한다. 신하로 두 마음을 품고 왕위를 찬탈한 세조와 그를 도운

19) 심경호, 앞의 책, 2003, 304쪽.

20) 金時習, <宕遊關西錄後志>, 『梅月堂集』, “一日, 忽遇感慨之事, 以謂男兒生斯世, 道可行則潔身亂倫, 恥也, 如不可行, 獨善其身, 可也. 欲泛泛於物外. 仰慕圖南思邈之風, 而國俗且無此事, 猶豫未決. 一夕, 忽悟若染緇爲山人, 則可以塞願.”

공신들을 인정할 수 없었던 만큼 그들과 공존할 수 있는 길이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무왕을 섬기지 못하고 수양산에 숨어 살며 쓸쓸히 죽어갔던 백이와 숙제처럼, 세조와 공신들의 세상을 버리고 은둔의 길에 오른 것이다. 이것은 현실세계에 대한 막연한 도피가 아니라 도의 실현을 위해 내린 의식적 실천이었다.

군자의 처신은 어렵다. 이익 때문에 조금하게 나아가서도 안 되고, 위기 때문에 다급히 물러나서도 안 된다. 공자께서 물에 담긴 쌀을 건져 갔지만 억지로 빨리한 것은 아니며, 걸음을 더디 했을 적에도 억지로 느리게 한 것이 아니었다. 성현께서 벼슬에 나아가고 물러남은 의리에 맞고 맞지 않음과 때의 가합과 불가함이 어떠한가에 달려 있을 뿐이다.²¹⁾

백이의 의리를 품고서 백이의 삶을 추종한 김시습의 진면목은 군신지의(君臣之義)를 세워 무왕과 태공을 경계한 데서도 찾을 수 있지만, 그 진퇴가 도에 맞아 은일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 무왕에 대한 비판과 경계는 수양산에서의 은둔과 서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인과적 관계에 놓여 있다. 백이는 의(義)의 관점에서 무왕의 부당함을 읽었던 것이고, 이 부당함 때문에 수양산에 은둔하여 주나라의 녹을 먹지 않았던 것이다. 위 예시문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김시습은 의(義)와 시(時)를 기준으로 진퇴를 결정했다. 의리에 맞고 때에 가하면 나아가지만 그렇지 않으면 물러나 자신을 닦는 것, 즉 도의 실현이 가능한지의 유무에 따라 거취를 결정한 것, 이것이 바로 김시습 출처관의 핵심이다. 그의 삶은 여기에서 한 치도 어긋나지 않았다.

21) 金時習, <君子隱現論>, 『梅月堂集』, “君子之處身, 難矣哉. 不可以利躁進, 不可以危勇退. 接漸而行, 非強速也, 遲遲吾行, 非強緩也. 聖賢之進退, 惟在義之當否, 時之可不可如何耳.”

백이가 주를 떠난 것을 두고 성인 중에 맑은 자라 하였고, 유허해가 노나라에 벼슬한 것을 두고 성인 중에 화한 자라 하였으며, 이윤이 은나라에 간 것을 두고 성인 중에 자임한 자라 하였으니, 그 성인됨은 한 가지다. 이사가 진나라에서 벼슬하고 양옹이 왕망의 신나라에서 벼슬한 것은 출처가 비록 다르지만 이익을 탐하고 의리를 범한 것은 한 가지다. 이런 까닭에 선비가 나아가고 물러남과 벼슬하고 하지 않음은 반드시 그 의가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도를 행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헤아릴 뿐이다. 반드시 물러나면 현명하고 나아가면 아첨하는 것이거나, 은거하면 고상하고 벼슬하면 구차한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떠날 때를 당하여 떠나는 것이니, 미자가 주 임금을 만났지만 상나라를 배신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나아갈 때를 당하여 나아갔으니, 이윤과 부열이 은나라에 나아간 것을 두고 뜻을 바꾸었다고 말할 수 없다. 은거할 때를 당하여 은거한 것이니, 백이와 숙제가 서산에 숨었지만 고상하다고 말할 수 없다. 벼슬할 때를 당하여 벼슬했으니, 여망이 위무를 떨쳤지만 구차하다고 말할 수 없다.²²⁾

그런데 김시습의 생평이 은일로 점철되었다 해서 그 의식의 지향점을 물러남에서만 찾아서는 안 된다. 은일은 출사(出仕)의 뒷면이고, 출사는 은일의 앞면이다. 둘은 조선조 사대부들에게 언제나 불일불이(不一不二)의 관계에 놓여 있었다. 김시습의 인식 또한 크게 다르지 않다. 김시습은 의리론의 관점에서 백이의 은둔을 추켜세우고 태공의 출사를 깎아내렸다. 신하로 두 마음을 품었다는 잘못과 이것이 후대 혁명의 빌미가 되었다는 원죄에서 태공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출처의 관점에서 김

22) 金時習, <君子隱現論>, 『梅月堂集』, “伯夷去周, 言聖之清, 展禽仕魯, 言聖之和, 伊尹之殷, 言聖之任. 其爲聖則一也, 斯仕於秦, 雄仕於新, 出處雖殊, 其干利犯義則一也. 是故, 士之去就隱顯, 必先量其義之適與不適, 道之可行與不行而已. 不必去而賢, 就而諂, 隱而高尚, 顯而苟且也. 故當去而去, 微子去紂, 不可言背商. 當就而就, 伊傅就殷, 不可言奪志. 當隱而隱, 夷齊西山, 不可言高尚, 當顯而顯, 呂望鷹揚, 不可言苟且.”

시습은 태공의 출사를 일정 정도 존중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취한다. 이는 의(義)와 시(時)를 기준으로 한 그의 출처관에 기인하는데, 엄광(嚴光)의 은일을 두고 “왕망의 난리로 한나라가 기울었을 때 광무제가 옹호한 역량으로 적을 죽이고 백성을 구제한 뒤 한나라 궁실을 다시 회복하려는데, 자릉은 구구한 절의를 위해 호연히 떠났다. 어찌 차마 제 몸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인륜을 어지럽힐 수 있는가?”²³⁾라고 비판했던 것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출사하여 인륜을 바로잡고 한나라 궁실을 회복하는 것이 의리이자 때에 맞는 행동이라 본 것이다. 출사해야 할 때 출사하지 않는 것도 군자의 도리가 아니라 비판했던 만큼, 김시습의 출처관을 처(處)에만 한정하여 보아서는 아니 된다.

강태공이 주나라 황실을 보좌한 공은 크지만 은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의리가 백이에 미치지 못한다. … 아아! 은나라가 무도하여 천명이 비록 떠나고 인심이 멀어졌다지만 태공은 은나라의 한 백성이다. 어찌 차마 다른 임금을 도와 제 군주를 죽일 수 있는가? … 그런 즉 태공의 성취로는 주나라의 공업은 도울 수 있지만 군신 간에 지켜야 할 큰 도리는 온전히 할 수 없다.²⁴⁾

그러나 태공의 출사에 대한 김시습의 인식을 살필 적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태공에 대한 인정과 긍정이 출처(出處)에만 한정될 뿐 아니라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태공이 비록 이사(李斯)와 양웅(揚雄)²⁵⁾

23) 金時習, <嘲二釣叟>, 『梅月堂集』, “當莽之亂, 炎祚已傾, 光武以雄渾之量, 誅賊救民, 欲光復漢室, 子陵以區區之節, 浩然歸去, 可忍潔其身而亂其倫乎.”

24) 金時習, <嘲二釣叟>, 『梅月堂集』, “太公之佐周室, 功則大矣. 以商世觀之, 義不能侔西山. … 嗚呼. 當殷商無道, 天命雖去, 人心縱離, 太公, 一商民也, 可忍佐異姓誅其君乎. … 然則太公之就, 能助周家之業, 不能全君臣之大義.”

25) 金時習, <君子隱現論>, 『梅月堂集』, “斯仕於秦, 雄仕於新, 出處雖殊, 其干利犯義則一也.”

처럼 개인의 명리를 위해 출사하지는 않았고 주나라 황실을 위해 보좌한 공이 크다고는 하지만, 군신 간에 지켜야 할 큰 도리를 온전히 할 수 없었던 과(過)를 덮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김시습이 의리론의 관점에서 태공의 출사를 비판했던 사실을 고려해 볼 때, 태공의 출사에 대한 일부 긍정적 평가는 언뜻 모순처럼 읽힐 수 있다. 그러나 조선조 백이 담론장에서 태공의 출사에 대한 비판과 긍정은 대체로 모순 없이 인지되고 수용되었던 점을 감안하면, 그리 이상할 것이 못 된다. 태공의 출사를 서로 다른 층위에서 바라보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인데, 의(義)와 경(經)의 관점에서 보면 태공의 출사는 비판의 대상이 되지만 인(仁)과 권(權)의 관점에서서는 긍정의 대상이 되었던 데서 확인이 가능하다. 윤기(尹楮, 1741~1826)가 <백이태공불상패론(伯夷太公不相悖論)>에서 백이의 척주(斥周) 및 은일을 태공의 출사(出仕)를 비교하여, 둘이 서로 모순되지 않지만 우열로 나뉜다고 천명했던 것은 이를 잘 보여준다.

김시습의 출처관에 비겨 다시 정리하면 태공의 출사는 때[時]에는 맞지만 의[義]에는 불완전함이 있는 출사이다. 까닭에 ‘구차하다고 말할 수 없다’는 부분 긍정의 메시지만 던졌던 것이다. 김시습에게 온전한 출처를 보인 이는 바로 백이다. 때에 맞을 뿐 아니라 의에도 걸맞았던 백이의 출처를 통해 김시습은 자신의 삶을 구성한다.

공자가 일컬었던 것처럼 백이는 일민(逸民) 전형이다. 그러나 백이의 삶이 은일로만 점철되었던 것은 아니다. 주 임금의 폭정을 피해 북해가에 숨어 살다가 문왕이 노인을 잘 모신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의탁한 데서 보듯, 백이가 출처에서 처(處)만을 지향하지는 않았다. 임금이 아니면 섬기지 않고 악인의 조정에 서지 않았지만, 의리에 입각하여 제대로 된 임금이면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았다. 백이가 백이가 될 수 있었던 1차적인 이유는 무왕을 거부하고 주를 섬기지 않은 것이지만, 백이가 백이가

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는 그 출처의 바름에 있다. 나아갈 때 나아가고 물러날 때 물러난 것, 이 또한 백이를 군자의 표상을 만든 주요 이유 중 하나이다. 김시습이 태공을 의리론의 측면에서 비판하면서도 출처관의 측면에서 일부 긍정했던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 지점에서 김시습이 세조의 찬탈을 비판하며 자취를 감추었다가 성종 조에 다시 현실 참여 의지를 드러내었던 이유와 근거를 엿볼 수 있게 된다.²⁶⁾ 김시습은 1471년 봄에 상경했는데, 1470년 성종의 등극 이후 유교 이념에 충실한 바른 정치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했던 듯하다. 그의 출처관에 따르면 왕위를 찬탈한 세조의 조정에는 설 수 없지만 현군의 자질을 지니고 있다는 새 왕의 조정에서는 벼슬을 못할 이유가 없었기에, 금오산실에서 일생을 마치려던 마음을 바꾸어 상경했던 것이다.²⁷⁾

『주역』고괘 상구에 “왕후를 섬기지 않는다.” 했고, 건괘 구이에 “대인을 보아야 이롭다.”고 했다. 각각 그 때로 말미암은 것인데, 교언영색하는 신하가 이익을 탐하느라 작록을 사양하여 임금에게 구하기도 하고, 가짜 선비가 이름을 구하느라 은둔을 팔며 피하기도 한다. 심지어는 재주가 졸렬하고 덕이 박하여 세상에 버림받은 자가 스스로 궁한 촌에 처하기도 하고, 불어서 올려 줄 세력은 없고 서로 혈뜬는 실질만 가진 자가 성내며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 “나 또한 은자의 무리이다.” 이는 모모가 서시의 아름다움을 본받는 격이니 어찌 말할 만하겠는가?²⁸⁾

26) 김시습의 현실 참여 의지와 좌절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였다. 이운구, 『매월당의 애민인식과 시의 성격』, 『한국한문학연구』1, 한국한문학연구회, 1976. ; 박영호, 『매월당의 문학인식과 애민시』, 『문학과 언어』7, 문학과언어연구회, 1986. ; 김종구, 『김시습의 방외적 삶과 현실주의시세계』, 『개신어문연구』18, 개신어문학회, 2001. ; 심경호, 앞의 책, 2003, 287~482쪽. ; 김용흠, 『조선 세조대 정치를 보는 시각과 생육신』, 『역사와 현실』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27) 심경호, 앞의 책, 2003, 288쪽.

김시습은<군자은현론>에서 백이와 태공 등을 매개로 자신의 출처관을 명확히 제시한 뒤, 궁극에서는 당대의 가짜 은자에 대한 비판의 날을 세운다. 조선 전기 문인을 분류할 때 흔히들 문인관료로 활동하던 관학과와 산림에 은거하여 심성을 도야하던 사림과, 그리고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비판적 지식인인 방외인으로 구분한다.²⁹⁾ 김시습은 이 중 방외인에 속하는 대표 인물인데, 당대의 관학과 문인들 및 출처관이 다른 사림과 문인들과는 그 삶의 결이 다르다. 김시습이 대표 관각문인이었던 김수온이나 서거정과 결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당대의 관각문인들은 돌아가야 할 현실적 산림도 명분도 갖고 있지 않았다. 그들은 ‘조정이나 속세에 은일하는 것이야말로 작위적으로 산림에 은일하는 것보다 우월하다’는 위진대 사대부들의 대은(大隱)과 조은(朝隱) 개념을 끌어 쓰으로써 출처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고자 하였다.³⁰⁾ 그런 만큼 이들과 김시습 사이에는 극복할 수 없는 심정상의 거리, 그 이상의 간극(의리론/출처관)이 존재한다.

<백이숙제찬>의 논평부분을 통해 구체화된 백이의 의리론과<군자은현론>을 통해 드러난 백이의 출처관, 동전의 앞뒷면처럼 서로 짝을 이뤄 김시습의 행적으로 뒷받침한다.<백이숙제찬>은 김시습에게 은일의 근거를 마련해주었고<군자은현론>은 은일의 기준이 되었다. 당대의 어느 누구보다도 강렬하게 정난과 찬탈에 비판적일 수 있었던 이유도, 한 평생

28) 金時習, <君子隱現論>, 『梅月堂集』, “易蠱之上九曰, 不事王侯, 乾之九二曰, 利見大人. 各因其時也, 至若巧臣貪利, 辭爵以要君, 僞士干名, 沽隱以避地. 甚者才劣德薄, 爲世所棄者, 自處窮村, 無吹噓之勢, 有交諂之實者, 悻悻然告人曰, 我亦隱者之徒. 是媮母而效西施之皀也, 何足道哉.”

29) 정출현, 『김시습과 서거정: 조선전기 사대부 문인의 두 초상』, 『동양한문학연구』21, 동양한문학회, 2005, 223쪽.

30) 김성룡, 『여말선초의 문학사상』, 한길사, 1995, 105~115쪽.; 이의철, 『조선전기 관각과 문인의 은일과 권력의 문제』, 『어문연구』33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421쪽.

방외인으로 방랑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내적 근거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백이에 기반을 둔 의리와 은일은 김시습 삶의 지향점이면서 동시에 부조리한 시대에 대한 강렬한 비판의식의 발로이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후대 청절로 길이 남을 토대가 마련된다.

3. 김시습의 백이 신화 구축과 그 함의

무왕이 태공 등과 함께 주(紂)를 정벌하고 주나라를 세운 일은, 군신지(君臣之義)와 역성혁명·의(義)와 인(仁)·경도(經道)와 권도(權道) 사이의 대립을 보여주고 있어 오랫동안 조선조 사대부들 사이에서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인 은주 교체기의 다섯 인자(仁者), 즉 미자·비간·기자·백이·태공의 행적은 군신 관계와 그것을 규율했던 에토스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을 받았는데, 그 중에서도 무왕의 주 정벌을 간하고 수양산에 굶어 죽은 백이의 청절(淸節)은 특히 사랑받았다.

세조가 정난공신들을 등에 업고 어린 단종을 죽인 뒤에 왕위를 찬탈한 일은 무왕이 주를 정벌하고 주나라를 세운 일과 구조적으로 매우 흡사한 양상을 띤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서로 다른 행보를 보인 정난공신과 사육신 및 생육신의 행적 또한 은주 교체기 다섯 인자의 그것과 대응하는 바가 적지 않다. 이에 당대 사대부들은 자신의 입장을 대변하고 생각을 드러내기 위해 지속적으로 무왕과 다섯 인자의 행적을 소환하였다. 박팽년, 성삼문, 김시습 등이 자신의 행적을 백이의 청절에 비긴 것도 같은 맥락 속에서 이뤄진 일들이다. 그런데 이 시기 김시습만큼 적극적으로 백이를 비평하고 자신의 삶에 끌어들이는 인물은 없다. 김시습에게 백이는 삶의

표본이자 지표였다.

그의 백이관(伯夷觀)이 잘 드러나 있는<백이숙제찬>은 조선조 백이 담론의 장에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우선 짚고 넘어갈 것은<백이숙제찬>이 무왕과 백이의 행적을 의리론의 관점에서 논평한 조선조 최초의 논문이란 점이다. 이 글이 표면적으로 찬(贊)의 형식을 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찬보다 긴 논평을 더해 백이론의 격식을 두루 갖추고 있는 작품이다. 물론 연구자의 무지와 소홀로 인해 다른 작품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이런 결론에 도달한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확인된 자료만 놓고 볼 때, <백이숙제찬>은 조선조 백이 담론의 역사의 첫 문을 연 작품임에 분명해 보인다.³¹⁾

더욱이 이 작품은 그 내용 면에서도 매우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조선조 백이 담론의 장에서 역대 사대부들은 주로 ‘백이의 의리와 그 의리의 가치’를 규정하는 데 집중해 왔다. 이 과정에서 백이와 대척에 있었던 무왕과 태공의 행적이 자연스럽게 비교되었는데, 관점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체로 백이의 의리는 만고에 빛날 경도(經道)로, 무왕과 태공의 행적은 한 대에 빛날 권도(權道)로 규정하였다. 이후 경도와 권도의 일치를 주장하여 둘 사이의 무게를 동일하게 본 경우도 있고, 경도에 무게 중심을 두어 같지만 다르다는 결론에 도달하기도 하였다. 18세기 노론 낙론계 학자들의 경우 대체로 후자의 관점에서 백이를 논하였고, 박지원과 박제가 등은 전자의 관점에서 백이를 논하였다.

그런데 김시습이 그리고 있는 백이의 절의는 이후 사대부들의 그것과

31) 김시습의<백이숙제찬>에서부터 이남규(李南奎, 1856~1907)의<백이론(伯夷論)>에 이르기까지 총 47가(家)의 문집에서 백이 비평 자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시대 백이 담론 자료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흥식, 『조선시대 백이 담론의 사적 흐름과 제 양상』, 한국고전문학교육학회 제90차 봄 정기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2013년 5월 11일, 2~6쪽.

결이 조금 다르다. 백이의 절의는 ‘신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전제에서 출발하며, 무왕 및 태공과의 대립 관계 속에서 그 구체성을 확보한다. 다만 무왕은 성인으로, 태공 또한 무왕을 도와 인을 완성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는 만큼, 이들을 비판하거나 부정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김시습은 백이의 절의를 절대화하여 무왕과 태공을 신랄하게 비판한다. 김시습의 백이관 내에서 ‘신하는 두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만고불변의 의리는 백성의 돌아선 마음으로 대표되는 천명(天命)과 도탄에 빠진 백성을 구제한 인(仁)에 비해 절대 우위를 점하고 있다. 김시습처럼 군신지의(君臣之義)의 관점에서 무왕과 태공을 이처럼 차갑고 매섭게 비판한 사람은 보지 못했다.

그런 만큼 김시습의<백이숙제찬>은 백이 담론의 출발을 여는 논문일 뿐만 아니라 백이의 의리를 ‘절대화/신화한’ 최초의 작품이라 이를 만한다. 백이의 간벌(諫伐)을 비역사적 사실로 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백이의 의리를 재해석한 김창흡(金昌翕, 1653~1722)의 의리론³²⁾이 나오기 전까지 백이 의리 해석의 한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백이숙제찬>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조선시대 백이 담론의 장에서 볼 때 백이의 의리에 대한 논평은 김시습과 김창흡의 관점 사이에서 분화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만큼, 백이의 의리를 절대화한 김시습의 해석은 특화된 의미를 지닌다 하겠다.

또한<백이숙제찬>은 김시습이 의리를 중심으로 엄격하게 세계를 이해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당대의 정치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신하로서 임금을 치는 것은 천하의 큰 변고이다. 천하의 대성인인 무공이 천

32) 金昌翕, 『漫錄』, 『三淵集』, “至夷齊諫伐事, 則七聖皆迷, 撻輪於荊公一隻眼. 始出於莊周寓言, 馬遷傳之, 韓愈頌之, 流傳千百年, 牢不可破. 至荊公而方碎其說. … 荊公所謂二老同去就者, 其論極洒落.”

하의 큰 변고를 행한 것을 두고 맹자가 경계했던 것은 이것이 구실이 될까 염려했기 때문이다.³³⁾ 그래서 탕왕과 무왕이 아니면 찬탈이라 말했던 것인데, 세조의 경우에는 무왕의 명분조차도 갖추지 못하였다. 단종이 주(紂)와 같이 폭정을 일삼았던 것도 아니고, 세조에게 천명이 옮겨간 것도 아니었으며, 민심 또한 이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신하의 지위에 있었던 수양대군(세조)은 그 옛날 주공이 그랬던 것처럼 어린 성왕(成王)이 친정할 수 있을 때까지 보좌하는 것이 순리였다. 그런데도 수양대군은 어린 군주를 죽이고 왕위를 찬탈했으니, 의리론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도 인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에 김시습은 세조와 정난공신을 향한 비판의 칼날을 무왕과 태공에 대한 비판으로 대체하게 된다. 서거정이 김시습이 지은<조이조수(嘲二鈞叟)>란 시를 본 뒤에 “그대의 시는 나의 죄상을 밝힌 문건이오.”(子之詩, 吾之罪案.)라고 말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³⁴⁾으로 보아<백이숙제찬>과 <이제>란 시는 김시습이 자신의 의리론을 드러내고 세조와 정난공신을 비판할 목적으로 창작된 작품임에 분명하다. 백이의 의리론을 후대 사대 부들에 비해 엄격하게 견지할 수 있었던 데는, 정난과 왕위 찬탈의 부당함이 한몫 했을 것이다.³⁵⁾

33) 鄭蘊, <太公扶伯夷論>, 『桐溪集』, “以臣伐君, 天下之大變也. 以天下之大聖, 行天下之大變, 則彼天下後世之窺覬人國者, 孰不以武王爲之口實, 而猶幸伯夷之義得行於萬世. 故亂臣賊子, 猶有所憚而不敢接跡.”

34) 심경호, 『김시습과 서거정』, 『한민족어문학』38, 한민족어문학회, 2001, 219쪽.

35) <군자은현론>은 김시습의 출처관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텍스트로, 김시습이 성종조에 현실참여의지를 드러낼 수 있었던 이유와 근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이 과정에서 새롭게 설정된 백이와 태공의 관계는, 조선조 백이 담론의 장에서 주로 논의되어 왔던 대표 주제인 만큼 백이 담론의 장에서도 유의미한 텍스트다. 여기서 김시습은 개인의 명리(名利)가 아니라 의(義)와 시(時)에 입각한 출처관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태공의 출사를 일정 정도 인정하고 긍정한다. 그러나 이는 신하로 임금을 친 원죄를 전제한 인정이며 긍정이다. 출처관의 입장에서

그런데 백이의 의리를 중심으로 무왕과 태공을 비판한 뒤 이를 세조와 정난공신에 대한 비판으로 치환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지만, 백이의 의리론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몇 가지 문제는 분명하게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이는 김시습이 사마천의<백이전>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그것이 후대의<백이전>이해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백이 담론의 장에서<백이숙제찬>차지하는 의미를 규정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정리할 필요가 있다.

<백이숙제찬>을 보면, 김시습이 사마천<백이전>을 역사적 사실로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을 뿐 아니라 난해하다고 평가되는<백이전>의 행간의 의미에 대해 그렇게 큰 관심을 두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그동안 백이 담론의 장에서 중요한 논란거리 중 하나였던 간벌(諫伐)의 실재성 문제, 난폭함으로 난폭함을 바꾸었다고 한 채미가의 사실성 문제, 채미가 속에 투영되어 있는 원망의 실재 문제까지 별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인다. 그리고 이를 통해 무왕과 태공을 비판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접근이 공맹의 주장과 일정부분 배치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백이의 의리에 흠집을 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공자는 백이가 인을 얻어 원망함이 없었다고 평했는데, 김시습은 오히려 백이의 원망을 그대로 받아들인다. 찬에서 논평으로 넘어갈 때 이를 매개한 것이 바로 채미가인데, 그 시의 내용을 그대로 재현하고 있다는 데서 이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백이 담론에 참여한 조선조 사대부들이

태공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의(義)와 시(時)에 입각한 출사의 한 전형을 보고 주고 있을 뿐이다. 의(義)와 시(時)에 맞아 도를 실현할 수 있다면 은일을 접고 출사할 수 있음을 드러내고 있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말이다. 다만 이것이 김시습만의 독특한 견해가 아니라 조선조 지식인들에게서 거의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바인 만큼, 본 장에서 따로 설명하지 않고 각주로 대신한다.

대체로 동의하지 않았던 바였다. 백이는 원망하지 않았으며, 난폭함으로 난폭함을 바꾸었다는 말을 백이가 했을 리 없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를 인정할 경우 앞서 언급한 대로 공맹의 말과 배치되고 백이의 의리에 흠집을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무왕이 불효와 불충의 문제도 거의 인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권도라는 이름으로 백이의 정도와 우위를 나누었을 뿐이다. 차이를 드러내었을 뿐 김시습처럼 비판으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이런 차이가 발생한 데는 여러 이유가 작용했을 터이다. 사마천의〈백이전〉에 대한 분석적 이해의 부재에 기인했을 수도 있고,³⁶⁾ 세조와 정난공신들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그와 같이 해석했을 수도 있을 것이다.³⁷⁾ 그 이유를 무엇이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두 가지 요소가 복합되어 나타난 것임에는 분명해 보인다. 김시습의〈백이숙제찬〉에서 백이 담론의 초기적 특징을 찾을 수 있다면 바로 이것이다. 즉 사마천의〈백이전〉에 대한 분석적·비평적 접근의 부재로 인해 그가 구축한 백이의 의리론이 공맹의 그것과 배치되는 등 여러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다.

36) 조선시대〈백이전〉비평의 출발을 여는 작품으로는 이덕형(李德馨, 1561~1613)의 〈서백이전(書伯夷傳)〉이 꼽힌다.(정우봉, 『한문 산문의 분석 방법과 실제 비평-조선시대〈백이열전〉비평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사, 2005, 861쪽.) 문헌자료만 놓고 볼 때 한 세기가 더 흐른 뒤에야 비로소 사마천의 〈백이전〉에 대한 문예 비평이 진행된 것이니 만큼, 김시습이〈백이숙제찬〉을 지을 당시에는〈백이전〉에 대한 분석적 접근이 부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37) 김시습이 정난 이후 은일하여 도교와 불교에 침잠했던 것은 사실이나 그렇다고 해서 유교적 본질을 온전히 잊은 것은 아니었다. 성종조 이후 환속하여 성리설을 연찬하는 등 그의 삶을 떠받들었던 중요한 기둥 중 하나는 분명 성리학이었다. 그런 만큼 김시습은 무왕에 대한 공맹과 역대 유자들의 평가를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도 군신지의(君臣之義)를 바탕으로 무왕과 그를 도운 태공을 집요하게 비판한 것은 세조와 정난공신에 대한 비판의 날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16세기 차천로(車天輅, 1556~1615)의<백이사명설(伯夷死名說)>이 후 백이의 의리에 대한 담론은 매우 구체화, 예각화 되는 양상을 보이는데, 김시습의<백이숙제찬>에서는 이런 점을 확인할 수가 없다. 백이 담론의 구체화와 예각화가 사마천의<백이전>에 대한 비평적 인식의 확장과 서로 맞물려 있는 만큼, 어쩌면 이는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김시습의<백이숙제찬>이 백이 담론의 장에서 초기적 모습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라 할지라도, 백이를 추종한 그의 삶과 백이관이 이후 17세기 후반부터 진행된 포양 사업과 맞물려 서인계 지식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다는 점은 그 의미가 적지 않다.³⁸⁾

4. 결론

본고는 조선시대 백이 수용의 제 양상과 백이 담론의 사적 맥락을 파악하기 위한 거시적 목표 아래 기획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백이 담론의 초기적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김시습의 백이론에 주목하여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백이숙제찬>과<군자은현론>을 통해 백이의 삶을 체화한 김시습의 백이론과 출처관의 실체를 파악하고, 이를 통해 당대의 정치·사회적 맥락과 조선시대 백이 담론의 장에서 두 작품이 차지하는 의미를 밝히고자 하였다.

궁극적으로 조선 초기 백이 담론의 한 양상을 드러내기 위해 수행한 이번 연구를 통해, 본고에서는 김시습이 백이의 의리와 은일을 바탕으로 자신의 삶을 구성했을 뿐 아니라 계유정난의 부당성을 적극적으로 비판하

38) 김시습의 수용 양상과 의미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고할 만하다. 이승수, 『17세기 후반 사대부의 김시습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28, 한국한문학회, 2001.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마천의<백이전>에 대한 비판적 이해의 부재로 16세기 이후 구체화, 예각화 되는 백이 담론에 비해 성근 백이론을 펼쳐치고 있음도 살펴볼 수 있었다.

상기 연구는 조선 초기 분화되기 이전의 백이 담론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매우 의미 있는 작업이다. 백이 담론의 장에서 중요한 논쟁거리로 인식되었던 여러 문제들에 김시습의 관심이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백이 이해에 분명한 한계를 보여준 것은 사실이지만, 백이의 의리를 통해 무왕을 너머 당대를 비판하고 있었다는 점은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더욱이 17세 중반 이후 서인계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포양 작업을 통해, 백이를 체화한 그의 삶과 백이관/은일관이 지속적으로 후대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데 더 큰 의미가 있다.

참고문헌

- 金時習, 『梅月堂集』, 한국문집총간.
 金昌翁, 『三淵集』, 한국문집총간.
 成海應, 『研經齋集』, 한국문집총간.
 宋時烈, 『宋子大全』, 한국문집총간.
 李德馨, 『漢陰文藁』, 한국문집총간.
 李廷馨, 『知退堂集』, 한국문집총간.
 鄭 蘊, 『桐溪集』, 한국문집총간.
 車天輅, 『五山集』, 한국문집총간.
 김성룡, 『여말선초의 문학사상』, 한길사, 1995, 105~115쪽.
 김용흠, 「조선 세조대 정치를 보는 시각과 생육신」, 『역사와 현실』64, 한국역사연구회, 2007, 233~263쪽.
 김종구, 「김시습의 방외적 삶과 현실주의시세계」, 『개신어문연구』18, 개신어문학회, 2001, 73~111쪽.
 김종서, 「박팽년의 문학과 정신」, 『동방한문학』32, 동방한문학회, 2007, 33~67쪽.
 박영호, 「매월당의 문학인식과 애민시」, 『문학과 언어』7, 문학과언어연구회, 1986, 99~120쪽.
 박재홍, 「김시습 문학에 나타난 역사인물의 형상화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23~26쪽.
 신성환, 「사육신 담론의 전변과 조선후기 시가의 수용 양상」, 『민족문학사연구』46, 민족문학사학회, 2011, 322~355쪽.
 심경호, 『김시습평전』, 돌베개, 2003, 129쪽 ; 287~482쪽.
 _____, 「김시습과 서거정」, 『한민족어문학』38, 한민족어문학회, 2001, 219쪽.
 이승수, 「17세기 후반 사대부의 김시습 수용 양상과 그 의미」, 『한국한문학연구』28, 한국한문학회, 2001, 187~215쪽.
 이운구, 「매월당의 애민인식과 시의 성격」, 『한국한문학연구』1, 한국한문학연구회, 1976, 19~42쪽.
 이의철, 「조선전기 관각과 문인의 은일과 권력의 문제」, 『어문연구』33권 2호,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5, 421쪽.
 이홍식, 「조선후기 백이 수용의 한 양상-연암 박지원의<백이론>상하 다시 읽기」,

『한국고전연구』23,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67~100쪽.

정우봉, 『한문 산문의 분석 방법과 실제 비평-조선시대<백이열전>비평자료를 중심으로』, 『한국 한문학 연구의 새 지평』, 소명출판사, 2005, 861쪽.

정출현, 『김시습과 서거정: 조선전기 사대부 문인의 두 초상』, 『동양한문학연구』21, 동양한문학회, 2005, 223쪽.

ABSTRACT

Maewoldang Kim Siseup's Understanding of Poyi and Meaning

Lee, Hong-shik

The researcher has meanwhile strived to apprehend types of *Poyi* acceptance and historical contexts of *Poyi* discourse in *Chosun* period. This paper is laid on extension of this research. Especially this paper takes note on *Kim Siseup's Praise for Poyi and Sukjai*(伯夷叔齊贊) and *Hiding Noblemen Theory*(君子隱現論) opening the first step of *Poyi* discourse in *Chosun* period. These two works concretely showed not only aspects of early *Poyi* discourse but also internal base of *Kim Siseup's* life filling of hiding.

So this paper newly constructs truth of *Poyi* understanding projected in two works in the level of loyalty and reclusion. And I read intention of *Kim Siseup's* writing connected with politic · social context in those time which was destroying of politics of royal statesmanship as *Kaeyu* suppression(癸酉靖亂), and evaluate value of works. Finally, I am finished a certain course with defining meaning and inspecting position of two works in the field of *Poyi* discourse during *Chosun* period.

As a result, *Kim Siseup's Praise for Poyi and Sukjai*(伯夷叔齊贊) and *Hiding Noblemen Theory*(君子隱現論) were representative works projected *Kim Siseup's* view of loyalty and reclusion realizing life of *Poyi*. Especially *Praise for Poyi and Sukjai*(伯夷叔齊贊) the praise genre adding debate was a controversial work criticizing *King Sejo* and meritorious retainers of suppression with comparing *King Mu* and *Taegong*. These had a lot of suggesting things in politic · social context in those time. Also in the field of *Poyi* discourse, *Praise for Poyi and Sukjai*(伯夷叔齊贊) was the first and the last works that criticized *King Mu* and *Taegong* in *Poyi's* the view of loyalty. This fact have another meaning.

However *Poyi* discourse had a limit that did not become concretization

and sharpening with absenting analytic · critic approach. This is an early limit in *Poyi* discourse. Of course, *Kim Siseup's Poyi* theory and view of reclusion did not cancel out meaning, because these consistently influenced to intellectuals of *Seoin* group engaging with working *Poyang* after the mid of 17C beyond those time.

Key Words *Kim Siseup*, Discourse of *Poyi*, *Praise for Poyi and Sukjai*(伯夷叔齊贊), *Hiding Noblemen Theory*(君子隱現論), Loyalty theory(義理論), view of reclusion and entrance into government service, The manners between vassals and Kings (君臣之義), the mythology of *Poyi*, critic on *King Wü* of *Zhōu*, *Kaeyu* suppression (癸酉靖亂), critic on *King Sejo*

논문투고일 : 2013. 04. 15

심사완료일 : 2013. 05. 23

게재확정일 : 2013. 06. 02